신흥국 전략

인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은 방산과 신재생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업종 전략

인도 모디 총리가 속한 여당 BJP의 선거 공약 선언문(Manifesto)이 공개됐다. 발표된 공약들 중 경제발전을 위해 인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비중을 높게 두는 AI, 전기차, IT 등 제조업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약 외에, 대내외 매크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방산 및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한다. 해당 업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심화되는 갈등 하에서 차기 정부의 계획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Make in India in Defence

첫째, 인도의 국방 자립화 정책 하에 방위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지속된 분쟁으로 국가 안보를 일찍부터 중시해온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과의 대규모 분쟁이 있었던 2019년에 발표한 선거 공약문에서 국방을 제1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금번 선언문 역시 국방을 제1과제로 삼고 향후 5년에 대한 플랜을 제시했다. 정부는 FY2024 방산 수출액이 목표치를 넘어 사상 최대(YoY +32%)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군사 장비의 국산화 정책을 꼽았으며, 향후 'Make in India in Defence' 이니셔티브 하에 국산화 정책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글로벌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 군수물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하에 국산 장비의 품질 개선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신흥국으로의 수출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NIFTY 방산 지수는 2022년 4월 출시 이후 NIFTY50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4월 16일 기준, 6M +55.3%, 1Y +1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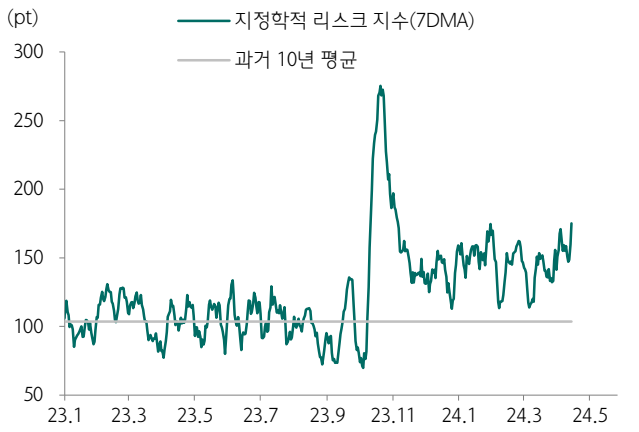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둘째, 중동발 유가 리스크 하에서 인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OPEC+의 감산 연장, 최근 심화된 중동 분쟁 등 요인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수요만큼 원유 수입량을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인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50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115GW, 풍력 9GW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향후 5~6년간 6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CAPA는 약 190GW로, 건설 중인 103GW와 입찰 예정인 72GW를 모두 합하면 약 360GW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가 확고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정책 가속화는 필수적인 옵션이라 판단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태양광을 주목한다.

신흥국 전략 김근아
geunak@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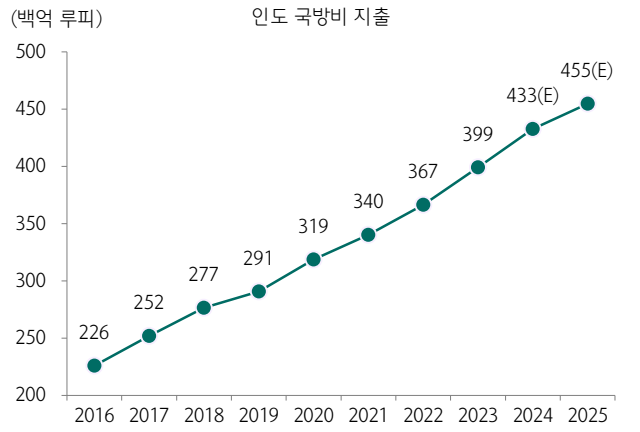
중국/신흥국 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차트 1.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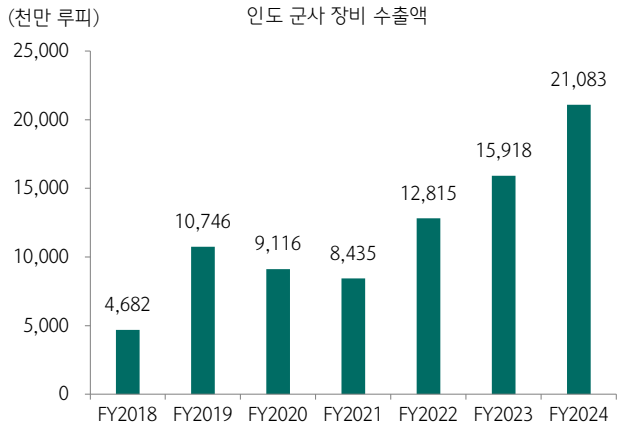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2. 인도 국방비 지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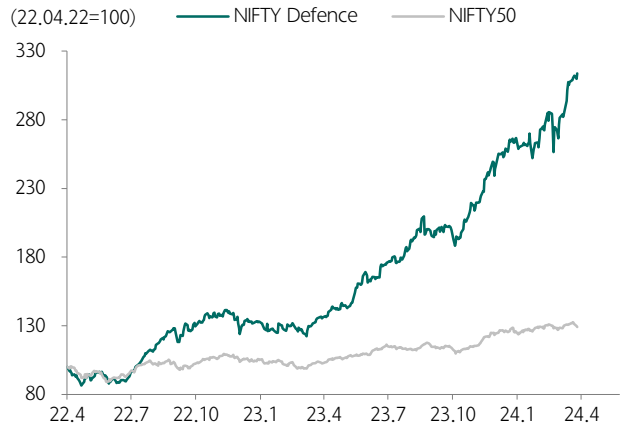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3. 인도 군사 장비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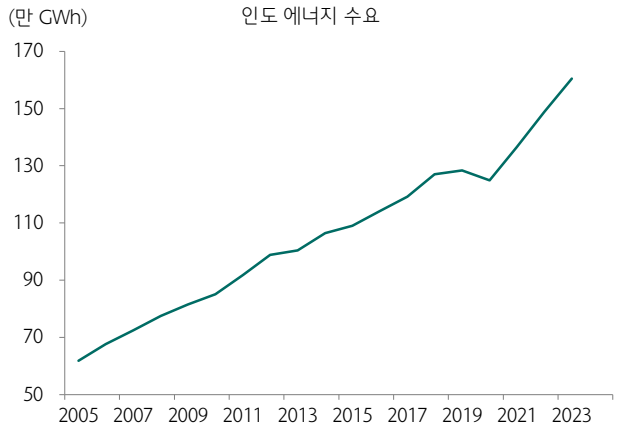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Defence of India, 하나증권

차트 4. NIFTY Defence 및 NIFTY50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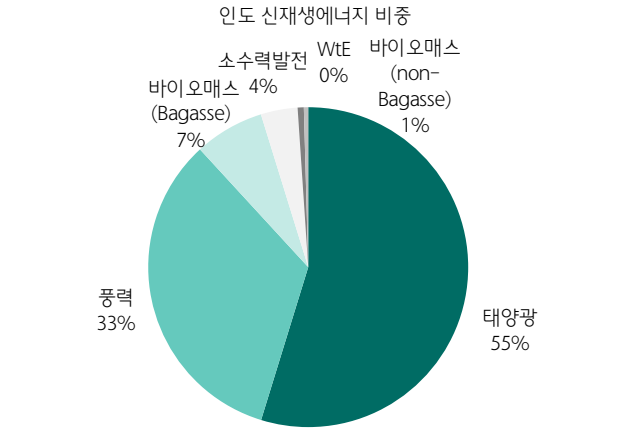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차트 5. 인도 에너지 수요 급증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6. 인도 신재생에너지별 비중



자료: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하나증권